

투데이 칼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세 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삶을 마감하기까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 남가주대학 심리학과 폴도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적인 습관"을 연구 분석하였는데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한다', '결을 걸기가 빠르다', '알지라에 않는다', '항상 웃음 띠 얼굴이다', '집중력이 있다'의 습관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의 총수나 회사 중역은 대다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친척적인 사고방식과도 통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만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으며, 훌륭한 상사는 예전에 한 번

실수를 했던 직원일지라도 일을 맡길 때에는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잘 해낼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사는 아랫사람을 신용하면서 일을 맡기므로, 아랫사람도 지난번의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다.

신중한 것과 긍정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전망이 밝은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하고 일단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짧고 패기 넘치는 사람

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강한 승부욕을 지나다보면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고 지나친 자만심은 화를 부른다.

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못난 사람이다. 사촌이 가난하면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올 것이고, 어쩌면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촌을 보면서 우물해 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촌이 나보다 잘 살면 실보다

독이 많고 사촌이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그 노하우를 귀땀해줄 수도 있고, 그 땅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해올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촌이 관리해달라고 맡긴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잘 되어 마침내 직원이 몇 천 명에 이르는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내 친구도 어린 시절부터 남의 세계에서 심부름하며 착한 마음으로 긍정의 사고로 근무하여 사업주로부터 업체를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고 그 덕으로 지금은 봉사와 나눔의 삶으로 성공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

세상을 불만, 불신, 불안으로 살지 말고 배려와 봉사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면 상승효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넓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사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전북 발전은 예산 확보가 말한다. 예산 확보가 없다면 지역 발전 계획은 그 어떤 것이라도 수포로 돌아간다. 아무리 거창하게 공표를 했다해도 그것은 그렇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등 26명이 나서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할 말이 있다. 지역발전을 약속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찌 이상하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그뿐이라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공표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난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큰사업들을 발굴했던 거 말이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발굴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 발굴이 능사가 아니지 싶어서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아직 그걸 없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전북도와 전발연을 책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말

이나면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판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예산심의관을 찾아가 새만큼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는데 도민들은 그 성취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도민들이 바라는 바 으뜸가는 기대는 증액된 예산 확보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을 반드시 추진시켜야만 한다. 큰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소규모 증액에 그친다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대폭 증액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 각각의 사업들을 본래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된다. 그걸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힘써야 한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젊은이들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도의 사업 발굴은 청사진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독자제언

가족·친구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보

친구나 가족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얻은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핸드폰번호를 통해 직장 동료나 친구, 혹은 가족으로 사칭하여 메신저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은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대고 또한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지 않고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보이스 피싱보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송금을 하기 전 꼭 전화를 해서 가족이나 친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송금 계좌가 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는 계좌라면 더욱 의심을 해야 한다.

둘째, 비밀번호를 변경 하는 등 주기적으로 자신의 계정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나 핸드폰에 보안패시를 설치하고 수시로 바이러

스 검사를 하여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나 pc방 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여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의를 하였다더라도 실수하여 메신저 피싱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일단 고객센터에 해킹 신고를 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112신고를 하거나 계좌이체 내역서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사건 신고 접수를 하고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자신이 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며 지인 또는 친구가 송금을 메신저로 해달라고 할 시 항상 의심해 보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혹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혼자 해결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병현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역류된 미국인 3인의 귀환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김동철씨(오른쪽 두번째)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양 팔을 올려 두 손으로 승리의 비(V)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그 모습을 노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더 늘려야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더 늘려야겠다. 도내 젊은이들의 수도권이 떠나고 있는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현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대비해야겠다. 면밀하게 플랜을 짜서 도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당부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비정규직이 양산됐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된 지금도 발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애를 써도 협조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세월이다.

전북도에게 다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 약속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일자리다운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래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그것은 바로 고용이 안정된 정규 일자리이다. 그런데 그 정규직과 고용안정이 매년 식언이 되고 있다. 여태 피부에 와 닿

는 실감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오래 전에 본보는 보도된 기사 그대로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50%를 훌쩍 넘어섰으리라는 짐작이다. 도내 고용 현실이 이러므로 전북도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 달라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이제 정적을 탈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관찮다거나 낙관하는 식의 발표는 함정이다. 혁신도시의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비정규가 태반인 것도 그렇고 1년짜리가 엄청 많은 것도 마뜩지 않다.

전북도는 도내의 일자리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고용의 질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전북도는이같은 지적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야 한다. 그런 모습을 각 시군 지자체들도 함께 보여주어 마땅하다. 비정규 일자리에 충실하고 있는 도내 젊은이들의 입장을 제발 헤아려보라는 주문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